

사립학교장과 전북 교육정책 공유

서거석 교육감, 일반계고
사립학교장들과 간담회
10대 핵심과제 동참 당부
학교 현장 애로사항 청취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28일 본청 2층 강당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사립학교장 간담회'를 열고 일반계고 사립학교장 50여 명과 교육정책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학기관과의 대화 창구 마련을 통해 전북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학교별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서 교육감은 △독서·인문교육 △수업혁신 △진로진학 △교육활동 보호 △환경·사회·윤리경영(ESG) 실천 등 올해 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를 소개하고 각 학교에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입학전형 발표 전 학급수와 학급 학생 인원을 미리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한 사립학교장의 요청에 "고등학교 입학 정원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28일 본청 2층 강당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사립학교장 간담회'를 열고 일반계고 사립학교장 50여 명과 교육정책을 공유했다.

학령 인구의 변화, 지역 여건과 교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입학전형 발표 전 8월 초까지는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학지도 관련 예산 교부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건의에서는 "지난해에는 하반기에 계획이 수립되면서 예산 교부가 늦어졌지만, 올해는 예산 교부를 7월 전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평준화 지역의 탄력적 정원 조정 제도 보완과 관련해서는 "향후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와 선순위 지망 배정률을 고려한 탄력적 정원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농어촌 지역 학급당 정원 축소 △원거리 지역 고등학교 통학비 부담에 따른 지원 △3식 운영 학교

조리실무사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사립학교는 전북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동반자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북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7일 무주군청에서 황인홍 무주군수, 우병훈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이근상 산학협력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사업공모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봄맞이 환경정화활동... ESG 실천 일화

전북교육청, 5개 부서 직원들 전주 삼천면·산책로 쓰레기 수거
본청·지원청·직속기관 자체 계획 수립 '자원봉사의 날'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ESG(환경·사회·윤리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 28일 봄맞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전주 삼천면과 산책로 일대에서 진행된 이날 환경정화활동에는 본청 행정국 소속 5개 부서 직원이 참여했다.

직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부서별로 구역을 나눠 삼천면과 산책로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전북교육청은 ESG 실천을 2025년 10대 핵심과제로 추진하면서 부서별로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청을 비롯해 14개 시·

군 교육지원청, 13개 직속기관은 분기별로 각각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경우 문화유산 보호 활동, 도로변 불법 쓰레기 수거, 반려해변 정화활동, 교통안전 캠페인, 헌혈 등을 실천하고 있다.

박성현 행정국장은 "전북교육청은 ESG 실천을 10대 핵심과제로 삼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환경정화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故 한수옥 회장의 나눔의 뜻 기리다

전북대, 추도식 열고 기부 정신 계승... 근검절약으로 모은 40억 상당 기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고액의 기부금을 기탁한 청정장학회 고(故) 한수옥 회장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추도식을 개최했다.

지난 28일 전북대에 따르면, 26일 전주시 상림동 청정장학회관에서 열린 이번 추도식에는 장학기금 수혜 학생들과 유가족, 전북대 발전지원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되새겼다.

故 한수옥 회장은 평생 사업과 근검절약으로 모은 부동산(약 40억 원 상당)을 2010년 전북대에 기탁하며,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헌신했다. 전북대는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그의 호를 딴 '전북대학교 청정(靑汀) 장학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데도 큰 의미를 갖는다.



전북대학교가 고액의 기부금을 기탁한 청정장학회 고(故) 한수옥 회장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홍승재 학생(바이오메디컬공학부 4학년)은 "故 한수옥 회장님의 기부 덕분에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다"며, "그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며, 나 역시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비전대,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뿌리산업연합회와 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27일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사장 김중훈), (사)전북뿌리산업연합회(회장 이상덕)와 함께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참여 및 모빌리티·뿌리산업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는 RISE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역 전방산업인 스마트 모빌리티(Mobility)와 후방산업인 뿌리산업 기반 스마트 제조(Manufacturing) 분야를 융합한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상호 협력하고자 추진됐다.

/김재훈 기자



전주비전대, 전북자치도

건축사회와 산학협력 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27일, 본교 대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회장 이상열)와 지역주력산업 활성화 및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더불어, 기업 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건설 및 DX(디지털 전환) 기술 분야 인재양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개발(R&D) 협력 △기술이전 및 창업 활성화 △취·창업 지원체계 구축 △지·산·학·연 연계 프로젝트 운영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착·취업 활성화 '손 맞잡다'

전주대, 경진원 일자리센터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센터장 엄경형)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전북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지난 28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제도와 연계되어,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에서 학업을 마친 후 정주하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될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중 우수 성적, 한국어 능력, 취업 의지 등을 갖춘 인재에게 F-2-R비자를 부여해, 이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고 중소기업 등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주대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



진흥원 일자리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사항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 운영,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확대, 그리고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이다.

국제교류원 심영국 원장은 "다양한 국가의 우수 유학생을 발굴하고 교육하여, 이들이 정주 취업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지자체와 협력해 구축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지역에 활력

을 불어넣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센터 엄경형 센터장은 "지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건강한 체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졸업 후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통한 취업 지원이 활성화되어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유학생의 취업 기회 확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어 능력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선별할 수 있게 되었고, 인구감소지역 내 모든 업종에서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해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ESG 실천·지역 연계 교육협력에 중점

전북교육청 학생수련원, 중고교생 대상 2025년 수련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원장 송영임)은 지난 24일 전주술빛중학교 및 성내·신림·고창남중 연합캠프, 27일 전북외국어고 1박 2일 캠프로 2025년 수련교육을 출발했다.

올해 교육은 도전체험과 심력강화를 바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지역과 연계하는 교육 협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집과이어, 집트래, 모험활동, 국궁, 클라이밍' 등 도전체험과 '나래, 효·예절' 등 심력 강화 활동, ESG 실천을 위한 생태전환프로그램 '유네스코 문화유산 여행, 뱀사골 자연탐방', 인문예술적 소양과 꿈을 키워줄 소설미디어 활용 '창작 챌린지', 심리치료극 '플레이백 시어터', '트롤리데라 퍼실리테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

영된다.

이밖에 고등학교 2학 3일 과정에 남원거점스포츠클럽과 '생존수영' 운영, 자연환경해설가 등 '치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의 전문인력을 지원받는 '숲체험'까지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협력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수련교육에 참여한 전북외국어고 최윤준 학생(영·스페인어과 2)은 "수련원 시설이 너무 쾌적하고 자연을 느낄 수 있어 만족스럽다"며 "평소 접하지 못했던 국궁과 클라이밍을 체험할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이었고 친구들과 함께해서 뜻깊었다"고 말했다.

송영임 원장은 "학생수련원은 학생들의 심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고, 지역교육 발전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